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보도자료

- 목 차 -

- I. 개요
- II. 시상
- III. 결산
- IV.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 V. 아시아프로젝트마켓 결산
- VI. 커뮤니티비프 결산
- VII.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I. 개요

1. 기본 개요

- 개최 기간: 부산국제영화제 2021년 10월 6일(수) ~ 15일(금)
- 상영관: 6개 극장 29개 스크린
 - 영화의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대영, 소향씨어터,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커뮤니티비프)
- 상영작
 - 공식 선정작 70개국 223편
 -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58편

2. 총 관객 수

- 영화제: 76,072명(총 유효 좌석수 95,163석/좌석 점유율 80%)
- 커뮤니티비프: 3,330명
- 동네방네비프: 3,771명

3. 프로그램 이벤트

- 오픈토크 6회
- 야외무대인사 10회
- 스페셜 토크 1회(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X 봉준호 감독)
- 액터스 하우스 6회
- 마스터 클래스 1회(레오스 카락스 감독)
- 아주담담 4회(유튜브로만 공개)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 짧은 영화, 긴 수다 3회(유튜브로만 공개)
- 게스트와의 만남(GV) 191회(오프라인 149회 / 온라인 40회 / 온·오프라인 동시 2회)

4.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 마켓 배지: 총 55개국, 853개사, 1,479명(2020년 총 45개국, 611개사, 885명)
- 온라인 부스: 총 23개국, 200개사, 200개 부스(신규업체 94개/거래 콘텐츠: 970편)
- APM 미팅 횟수: 총 515건
- E-IP마켓 미팅 횟수: 총 824회



II.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1] <안녕, 내 고향> | 왕얼저우 | 중국

심사평: 왕얼저우 감독의 첫 장편 <안녕, 내 고향>을 통해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그 신비스러움에 매혹되고 매료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시간, 가난, 교육, 그리고 여자 주인공들이 타협해야 하는 순간들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골 마을의 꿈같은 풍경에서 시작해 베이징 외곽의 성냥갑 같은 건물로 이어지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선택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목격하고 깨닫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영화에 뉴 커런츠상을 수여합니다.

[수상작 2]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 김세인 | 대한민국

심사평: 제 영웅 루이스 브뤼엘 감독의 고견에 따르면, “영화가 구체성을 획득하는 순간, 보편성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한국의 김세인 감독이 연출한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확한 성취를 이룩한 작품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영화에서 모녀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다루어 왔지만, 이 영화 속 모녀 관계는 감독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두 주연 배우의 놀라운 연기를 보면서 때때로 숨이 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어머니에게 “자기결정권이 곧 이기심인가”라는 질문을 궁극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은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에 뉴 커런츠상을 수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디파 메타(캐나다/감독)
- 심사위원: 크리스티나 노르트(독일/위원장,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장준환(대한민국/감독)

정재은(대한민국/감독)

2. 지식상

[수상작 1] <레이피스트> | 아파르나 센 | 인도

심사평: 감독은 심리, 사회적 배경, 계급, 종교 등 성폭행 사건 뒤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루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영화는 인도 사회, 그리고 인도 사회가 이런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수상작 2] <젠산 펀치> | 브리얀테 멘도자 | 필리핀/일본

심사평: 영화의 강렬한 서사는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진행된다. 이 이야기는 영웅이 승리를 위한 길을 걷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간적인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오키나와와 환상의 세계는 겉보기에는 다른 세계들처럼 보이나, 사람들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이어져 있다.

[특별언급] <홍정> | 왕기 | 중국

심사평: 이 영화는 상해의 경제구조가 농촌의 인적 자산을 끌어오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노동자들을 버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최고 경영진들이 다음 세대에게 남길 자본주의적 유산을 만들지 않았다는 고백으로도 볼 수 있다.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지석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레자 미르카리미(이란/감독)
- 심사위원: 굴나라 아비키예바(카자흐스탄/교수)
- 김혜리(대한민국/영화평론가)

3. 비프메세나상

[수상작 1] <206: 사라지지 않는> | 허철녕 | 대한민국/태국

심사평: 허철녕 감독은 한국인이 딛고 서있는 과거의 피범벅 된 땅을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악몽과 같은 집단 학살의 흔적은 발굴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따라 프레임에 담긴다. 감독은 땅속 해골과 뼈를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발굴하듯, 20세기 역사의 비극으로 희생된 자들의 유해를 카메라로 비추며 위로한다.

[수상작 2] <자화상: 47KM 마을의 동화> | 장멩치 | 중국

심사평: 장멩치의 영화는 자아, 가족, 고향을 넘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화상이다. 감독은 필연적 ‘혈연’과 의도된 거리 두기를 통해, 아버지의 고향 마을 풍경과 어린이, 노인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았다. 우리는 따뜻하면서 깨어있는 자의식을 지닌 감독의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시선과 꿈에 신선한 영감을 받는다.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왕난푸(중국/감독)
- 박경근(대한민국/감독)
- 맨디 마라히민(인도네시아/프로듀서)



4. 선재상

[수상작 1] <장갑을 사러> | 이현주 | 대한민국

심사평: <장갑을 사러>는 미세한 감정의 기류들을 섬세하게 포착해 낸 작품입니다. 여자 주인공 인경은 사랑하는 대상들을 계속해서 상실합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상실로 귀결되지 않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인경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오랜 잔상을 남깁니다. 심사위원들은 연출자의 연출적 고민의 순간들에 응원을 보내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작 2] <바다가 나를 부른다> | 톰팔 탐푸볼론 | 인도네시아

심사평: 톰팔 탐푸볼론 감독은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생각지 못한 감정의 대상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재현하고 싶은 가장 인간적인 본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진다.

[특별언급] <사리> | 리밍양 | 중국

심사평: 리밍양 감독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믿음을 이끌어왔으나 빠르게 사라지는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 미묘한 유머를 사용하여 관객들을 도시화라는 무채색의 세계로 이동시킨다.

선재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바스티안 메이레종(프랑스/집행위원장, 떼르디씨, 떼르다이어 영화제)

로이스톤 탄(싱가포르/감독)

윤단비(대한민국/감독)



5. 올해의 배우상

[올해의 배우상-남자] 권다함 | <그 겨울, 나는> | 대한민국

심사평: 영화 <그 겨울, 나는>에서 경학을 연기한 권다함 배우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본인의 섬세한 연기를 통해 관객과 소통한다. 때로는 누구나 공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진심 어린 이입점을 만들어 철저히 인물의 심리 속에 가두어 버리는 듯한 강렬함을 선사한다. 어느정도 몰입이 소화될 무렵, 자연스레 인물의 감정이 영화를 보는 나와 전혀 괴리감 없이 작품의 상황 속 먹먹함으로 여운을 남긴다. 그리고 권다함 배우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진심 어린 연기는 분명히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가 되었다. 그러므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올해의 배우상 심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러웠으며 참여한 모든 배우들의 열연은 물론, 열정과 진심을 다해 작품에 참여한 제작진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올해의 배우상-여자] 임지호 |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 대한민국

심사평: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보는 러닝타임 내내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며 나도 함께 슬프고 외로웠다. 특히 딸 이정 역을 맡은 배우 임지호가 천천히 움직이며 커커이 쌓아가는 감정선은 관객들을 영화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듯하다.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엄정화(대한민국/배우)

조진웅(대한민국/배우)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6. KB 뉴 커런츠 관객상

[수상작]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 김세인 | 대한민국

심사평: 관객 투표(심사평 없음)

7.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

[수상작] <매스> | 프란 크랜즈 | 미국

심사평: 관객 투표(심사평 없음)

8.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수상작] <세이레> | 박강 | 대한민국

심사평: 민속 신앙에 기반한 귀신들의 전설과 오늘날 아이의 출산을 앞둔 한 남자의 심리적 고통 사이에서, 이 창의적 영화는 리얼리즘과 환상을 결합한다. 심도 있는 연출은 주연 배우의 담담한 연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나다 아즈하리 질롱(프랑스/영화평론가)

왕신(대만/영화평론가)

김네모(대한민국/영화평론가)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9.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수상작]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 김세인 | 대한민국

심사평: 이 멋진 영화는 김세인 감독의 첫 장편으로, 뛰어난 유머 감각과 대담한 이야기 전개, 그리고 임지호와 양말복의 빼어난 연기를 통해 어느 모녀의 복잡하고 뜬금없는 혈투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시작부터 엄마 수경과 딸 이정 사이의 팽팽한 긴장과 문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대화 장면이 시작돼도 모녀 사이의 친밀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강렬한 시작 덕분에 관객은 감정적으로 영화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의 서로 다른 개성, 기질, 그리고 실망감에 공감하고 맙니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맛깔나는 대사 또한 신체적, 심리적 학대와 관련된 긴장감을 점점 더 고조시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영화는 이 세상에 단순한 결론은 없고, 선과 악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메브룻 아카야(터키,미국/감독)

유순희(대한민국/합천 수려한 영화제 집행위원장)

프레디 올슨(스웨덴/예테보리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10. 한국영화감독조합상-메가박스상

[수상작 1] <그 겨울, 나는> | 오성호 | 대한민국

[수상작 2] <절해고도> | 김미영 | 대한민국

심사평(공통): 다양한 결의 좋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메가박스상’의 심사는 어떤 우열을 가리기보단 심사위원들 각자의 성향과 취향을 담아 지지하는 영화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겨울, 나는>과 <절해고도>는 공감을 이끌어 내는 진정성 있는 연출과 더불어 이를 표현하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두 작품 외에도 비전 부문 모든 감독님들의 다음 작품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메가박스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김재한(대한민국/감독)

장철수(대한민국/감독)

한준희(대한민국/감독)

11. CGV아트하우스상

[수상작] <초록밤> | 윤서진 | 대한민국

심사평: 흔히 생명력을 상징하는 초록의 이미지를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어둡고 공허한 감정을 표현하는 장치로 활용하여 담담하면서도 독창적인 시선을 보여준 작품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12. KBS독립영화상

[수상작]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 박송열 | 대한민국

심사평: 첫 장면으로는 어쩌면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평범한 독립영화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영화는 생생한 캐릭터, 미묘한 재치, 독특한 리듬, 세밀한 카메라 작업, 그리고 균형 잡힌 이야기로 관객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박송열과 원향라는 한국독립영화계에 흥미로운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왔다.

KBS독립영화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김무령(대한민국/제작자)

달시 파켓(미국/평론가, 번역가)

이종필(대한민국/감독)

13. CGK촬영상

[수상작] <초록밤> | 추경엽 | 대한민국

심사평: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비전 및 뉴 커런츠 부문에 출품된 한국영화들은 형식과 스타일 측면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CGK촬영상은 만장일치로 <초록밤>의 추경엽 촬영감독을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초록밤>은 매우 간결하고 절제된 영상을 통해 영화의 정서는 물론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장면속 공간과 인물을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는 데 있어 매우 탁월한 영상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감독과 촬영감독의 협업으로 완성되었을 대부분의 롱테이크 쇼트는 프레임을 선택하는 순간 버려진 나머지 모든 기회비용들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비워냄으로써 다른 영화들에서 자주 보이는 롱테이크 쇼트들과 비교하여 모범적이고 교과서와 같은 롱테이크 쇼트의 진수를 보여 주었습니다.

CGK촬영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김병정(대한민국/촬영감독)

백윤석(대한민국/촬영감독)

이선영(대한민국/촬영감독)

14. 크리티크b상

[수상작]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 박송열 | 대한민국

심사평: 심사위원들은 박송열 영화의 완결편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먹고 사는 일의 준엄함과 양심을 지키는 일과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영화의 용기에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간결한 형식 안에서 진한 감정을 자아내며 솟을 명확하게 운용하는 영화, 삶과 예술을 함께 사는 동지의 모습을 오래 보고 싶습니다.

크리티크b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김지연(대한민국/영화평론가)

박인호(대한민국/영화평론가)

홍은미(대한민국/영화평론가)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15. 왓차상

[수상작 1] <그 겨울, 나는> | 오성호 | 대한민국

[수상작 2]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 김세인 | 대한민국

심사평(공통): 힘이 있고 집요한 연출과 단단한 연기를 바탕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왓차상을 통해 실력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계에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초록밤> | 윤서진 | 대한민국

심사평: 이 영화는 절제된 대사와 서사의 공백을 감각적인 이미지와 사운드와 결합함으로써 죽음에 맞닥뜨린 가족을 드러냅니다. 또한 관념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시의성을 잃지 않는 균형을 보여주었기에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택하였습니다.

17.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아임 쏘 소리> | 자오량 | 홍콩,중국/프랑스/네덜란드

심사평: 이 영화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관객에게 다가갑니다. 또한 치밀하게 설계된 서늘한 사운드와 메타포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기에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택하였습니다.



III. 결산

1.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으로 치뤄진 우리나라 첫 국제행사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은 코로나 사태 이후 1,000명 이상의 일반 관객이 참여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행사였다. 개막식 참석 대상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 또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된 자로 엄격히 제한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3차에 걸친 방역자문단의 사전 자문을 받아 전 운영진의 백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어, 개·폐막식을 비롯한 야외무대인사, 오픈토크 등의 행사장에서도 관객과 영화인이 직접 소통하는 영화제 본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대중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과 핫라인을 사전에 구축해, 영화제 기간 중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확인한 당일 선제적 역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했고, 추가 확산 없이 안전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었다.

2. 관객들로 활기찼던 영화제

전체 좌석의 50%만 사용했지만 관객의 열기는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좌석 점유율 80%를 기록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억눌린 영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야외극장에서 상영한 오픈시네마도 8일 가운데 5일간 매진을 기록했고 전체 상영 회차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진을 기록했으며, 야외무대행사에도 연일 관객들로 가득 찼다.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3. 신규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

신작 OTT 드라마 시리즈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온 스크린’ 섹션은 올해 처음 신설해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왔다. <지옥>, <마이 네임>, <포비든> 3편 모두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온 스크린’ 섹션의 성공적인 안착을 보여줬다. 배우들이 영화와 자신의 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액터스 하우스’ 역시 6번의 행사 모두 성황리에 열렸다. 이제훈, 전종서, 한예리, 조진웅, 변요한, 엄정화 등 6명의 배우는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4. 2년 만에 해외 게스트들의 참석

지난해 한 명의 해외 게스트도 초청하지 못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적은 숫자지만 해외에서 게스트들이 부산을 방문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과 레오스 카락스 감독을 비롯하여 총 69명의 해외 게스트들은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인 GV, 스페셜 토크, 마스터 클래스, 기자회견,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객들과 만났으며, 관객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5. 탈중심형 프로그램의 성공적 개최: 동네방네비프, 동시상영회

부산 해운대와 남포동을 중심으로 개최해온 부산국제영화제를 그 외 지역으로 확장한 프로그램인 동네방네비프는 총 14개의 장소에서 15편의 영화를 35회에 걸쳐 상영하였다. 3,771명의 관람객들은 극장이 아닌 문화 명소에서 영화를 보는 색다른 경험에 호평을 내놓았다. 영화제 또한 동네방네비프를 통해 시민들에게 영화제의 경험과 함께 영화도시의 위용과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이다.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더불어 부산국제영화제가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진행한 동시상영회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코로나19 시대에 관객들에게 공간적 제약을 넘어 하나가 되는 뜻깊은 경험을 선사하였다.

6. 커뮤니티 비프의 영역 확장

관객 참여의 깊이와 영역이 더욱 확장됐다.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는 리퀘스트시네마의 레퍼토리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아시아영화 프랜차이즈로부터 <안녕, 미누> 등의 독립영화 화제작까지 망라했다. 영화를 색다른 방식으로 보는 실험은 영화퀴즈대회와 관객이 직접 스토리를 선택하는 게임씨어터를 통해 업그레이드 됐다.

7.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 미팅 수 기록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던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한국인 대상으로는 현장에서, 해외 참석자 대상으로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아시아프로젝트마켓과 E-IP 마켓은 총 1,300회가 넘는 역대 최고의 미팅 건수를 기록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아시아콘텐츠어워즈와 아시아필름어워즈에서는 한국과 아시아의 우수한 시리즈와 영화가 주목받았다. 온라인 콘퍼런스 또한 유튜브로 중계해 대중의 관심을 모았으며, K-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8. 대면 행사로서 성공적인 개최였지만, 과제를 남긴 영화제

공식적으로 2회의 영사사고와 2회의 기자회견 지연 등 영화제의 운영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 좀 더 관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관객과 참석자들의 기대와 호응에 보답하는 영화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IV.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던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에서는 K-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폭발적인 대면 비즈니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대비 67% 증가한 1,479명이 참가해, 200개의 온라인부스, 319편의 마켓스크리닝, 112편의 영화제 공식선정작을 관람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해외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아시아프로젝트마켓과 E-IP마켓은 총 1,300회가 넘는 역대 최고의 미팅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원작 판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E-IP마켓은 작년의 3배가 넘는 800여회의 미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케 했다.

1.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통계

- 마켓 배지: 총 55개국, 853개사, 1,479명(2020년 총 45개국, 611개사, 885명)
- 온라인 부스: 총 23개국, 200개사, 200개 부스(신규업체 94개/거래 콘텐츠: 970편)
- 온라인 스크리닝
 - 마켓 스크리닝: 총 18개국, 83개사, 319편(마켓 프리미어 141편)
 - 영화제 선정작: 총 112편
- E-IP마켓
 - E-IP마켓 선정작: 총 45편(한국 28편, 대만 10편, 일본 7편)
 - 공식 비즈니스 미팅 횟수: 총 824회(온라인 216회, 오프라인 608회)
- 작년 온라인 마켓의 사용성 대폭 개선과 동시에 국내 참가자에 한해 오프라인 운영한 역대 최초 하이브리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전년 대비 마켓 배지 약 67%, 참가 기관 및 업체 약 40% 증가
- 한국 콘텐츠 업계의 대면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에 대한 억눌린 수요 해결



- E-IP마켓, 역대 최다 출품, 최다 미팅 건수 기록
- 마켓 전용 모바일 앱 출시와 함께 사용성이 대폭 향상된 온라인 마켓 통해 비대면 비즈니스 지속 지원
- 제3회 아시아콘텐츠어워즈 온라인 생중계 누적 1.8만명 시청, 숏폼/OTT오리지널/애니메이션까지 영역 확장
- ACFM 온라인 콘퍼런스, 신규 자체 기획으로 K-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조명

2. 제3회 아시아콘텐츠어워즈 수상 결과

부문	수상자/수상작	국적/제작국가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무브투헤븐>	대한민국
베스트 아시안 티비 시리즈	그녀의 이름은 난노 S2	태국
베스트 OTT 오리지널	침묵적진상	중국
베스트 아시안 애니메이션	천지창조 디자인부	일본
베스트 숏폼/웹드라마	세커	카자흐스탄
올해의 남자배우상	이제훈 <무브투헤븐>	대한민국
올해의 여자배우상	송가 <소사득>	중국
작가상	윤지련 <무브투헤븐>	대한민국
신인상-남	모리사키 윈 <진심의 증거>	일본
신인상-여	고민시 <스위트홈>	대한민국
	코에 이트 <티투다오>	말레이시아
기술상	스위트홈	대한민국
인기상	송강 <스위트홈>	대한민국
심사위원 특별상	<한자와 나오키>	일본
크리에이티브 비욘드 보더	<배드 지니어스 더 시리즈>	태국
	<아리스 인 보더랜드>	일본



3. 제15회 아시아필름어워즈 수상 결과

부문	수상자/수상작	제작국가
2020 최고흥행아시아영화상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일본
신인감독상	홍의정 <소리도 없이>	대한민국
신인배우상	류하오춘 <원 세컨드>	중국
음향상	노파왓 리킵왕 <지치>	홍콩
음악상	데이 타이 <댄스 스트리트>	홍콩
여우조연상	마키타 아쥬 <트루 마더스>	일본
남우조연상	김현빈 <침묵의 숲>	대만
미술상	케네스 막 <지치>	홍콩
의상상	코케츠 하루키 <스파이의 아내>	일본
촬영상	마수드 아미니 티라티 <더 웨이스트랜드>	이란
시각효과상	팀 크로스비, 조이 우 <800>	중국
아시아영화엑셀런스상	이병헌	대한민국
편집상	리용이 <공작조: 현애지상>	중국
각본상	차이타니아 탐하네 <수업시대>	인도
여우주연상	아오이 유우 <스파이의 아내>	일본
남우주연상	유아인 <소리도 없이>	대한민국
감독상	장이모우 <원 세컨드>	중국
작품상	<스파이의 아내>	일본



V. 아시아프로젝트마켓 결산

1. 아시아프로젝트마켓 결산 통계

- 운영 방식: 온라인 및 한국 참가자 대상 현장 미팅 병행
- 총 선정 프로젝트 수: 15개국 25편
- 공식 비즈니스 미팅 횟수: 총 515건
- 총 참가자 수: 91개 업체 100명
- 한국, 대만, 프랑스, 홍콩, 일본 등의 참여가 활발했으며, 선정 프로젝트가 고른 관심을 받은 가운데 특히 여성 감독/프로듀서들의 프로젝트와 한국 포함 동북/동남아시아 프로젝트들이 선전하며 눈길을 끌었다.

2. 2021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어워드 수상 결과

부문	수상 프로젝트 감독명 프로듀서명	제작국가
부산상	아버지의 비밀 윤재호 모성진	대한민국
CJ ENM 어워드	그 때, 지금 카밀라 안디니 기타 파라, 이파 이스판샤	인도네시아
KB 어워드	세기말의 사랑 임선애 박관수 한국	대한민국
뉴트리라이트 어워드	그 여자들의 범죄 시에페이쥬, 양치에, 후양단츠, 리아이후이 에스텔라 발디비에소 천, 헤이즐 우	대만
아르떼키노상	칼 던지는 아이 응우옌 판 린 단 응오 티 빅 하인	베트남
팝업필름 레지던시상	안개 속의 코끼리 아비나시 비크람 아눛 포우델	네팔
모네프상	스펙트럼 김보라 변승민	대한민국



VI. 커뮤니티비프 결산

부산국제영화제 속 영화 축제 커뮤니티비프는 더 가까이 관객 일상으로 스며들어 관객 참여의 폭과 깊이가 확장됐다.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는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은 모두가 주체가 되는 수평적 영화제를 구현하여 호평 받았다. 하나의 주제를 하루 3회 영화 상영으로 집중탐구하는 ‘데이바이데이’라는 신설 프로그램도 돋보였다. 이 외에도 관객이 다수결로 관람하는 영화의 서사에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방식의 ‘게임씨어터: 선택하는 영화관’, 색다른 영화 보기 실험을 놀이처럼 즐기는 ‘영화퀴즈대회’, 제시된 주제로 24시간만에 영화를 만들어 제출하는 ‘영화백일장: 커비삼거리 찍을 거리’ 등 새로 시도한 풍성한 이벤트와 변화하는 영화문화 트렌드를 담은 ‘커비컬렉션’ 등을 올해 새롭게 선보였다.

1. 커뮤니티비프 결산 통계(동네방네비프 포함)

○ 총 참가자 수: 7,101명(관람 및 참가)

- 극장 관람객 및 비프광장 참가인원: 3,330명
- 동네방네비프 참가인원: 3,771명

○ 프로그램

- 상영 작품 수: 52편(단편 포함)+6편(MAMF 수상작)

※ MAMF: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경남 문화다양성축제

- 영화 상영: 45회
- 스페셜 이벤트 5회
- 게스트와의 만남(GV): 77회 ※ 게스트 수(영화인): 98명
- 공연: 32회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2. 커뮤니티비프

- 기간: 10월 7일(목) ~ 14일(목)
- 장소: 롯데시네마 대영,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남포동 비프광장 등
- 프로그램
 - 게스트와의 만남(GV): 46회
 - 커비로드(야외무대): 38회
- 주요 내용
 - 리퀘스트 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마스터톡/데이바이데이/청년기획전
 - 블라인드영화제:정두홍: 커비컬렉션
 - 이벤트
 - 전야상영회/게임씨어터: 선택하는 영화관/영화퀴즈대회/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 커비로드: 부산의 노포/친구, 도다리/부산의 낮과 밤/커비삼거리/스크리닝 퍼레이드
- 참가규모: 3,330명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3. 동네방네비프

- 기간: 10월 7일(목)~14일(목) *지역별 일정은 다르게 진행
- 장소: 사하구 장림포구 부네치아, 강서구 록산, 동래구 복천동고분군, 기장군 고리에너지팜 등 14개 장소
- 프로그램
 - 상영 작품 수: 15편
 - 영화 상영: 36회
 - 게스트와의 만남(GV): 31회
 - 상영 전 공연: 21회
- 참가규모: 3,771명



2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 – 15 October 2021

VII.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총 참석인원 2,627명

- 국내게스트 1,079명

- 해외게스트 69명

- 마켓 1,479명

※ 단순 참가(방문)자 및 프레스 제외